



브리핑 페이지 12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나타나는 혁신 : 도시와 대학에서 의미하는 바는? (The Coming Revolution in Public Services: What it means for Cities and Universities?)

조셉 콘비츠 (Josef Konvitz, *Chair, Pascal International Observatory*)

요약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혁명적 변화를 위한 전제조건은 갖추어졌다. 국제금융 및 경제 위기로 인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와 직업세계에서의 중대한 변화들은 이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오래된 도시와 새로운 도시, 그리고 성장하는 곳과 쇠퇴하는 곳 등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나타날 수밖에 없다. 도시는 새로운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 대학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위한 연구와 혁신을 촉진하고, 해결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훈련하고, 사회가 삶과 일을 위한 더 좋은 방법에 개방적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평생학습은 그 역할의 핵심에 위치할 것이다. 효과적인 해결책들이 시행되려면 도시와 대학의 협력이 필요하다.

주된 이슈들(Key Issues)

위기는 한 사회의 회복력과 적응력을 시험한다. PASCAL의 학습도시 계획은 이러한 위기로 인해 지역공동체나 도시가 당면할 피해를 복구하는 한편, 그들이 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처하며 나아가 심지어 붕괴위기까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인간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느 것도 쉽거나 간단하지 않다. 개인은 학습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교육기관들은 가르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역사회(communities)와 기업가들은 일을 위한 학습과 기술을 지원하고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적 차원의 방법에 투자할 책임이 있다. 도시와 지역들은 그들이 비록 더 큰 자율성을 추구할지라도, 혹은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더라도, 어쨌거나 더 많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공 서비스가 도시-지역 내에서 어떻게 조직되고 전달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은 부분적으로 대학과의 협력에 달려있다.

학자와 현장활동가들을 함께 묶어내는 PASCAL의 독특한 접근은 지역적 맥락에서 이것들을 가능하게 만든다.

최근의 분석 (Recent analysis)

우리가 모든 대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만, 사실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모른다. 2012년 OECD skills strategy(p,13)는 정부에 다음을 요청한다.

- 부족한 자원의 투자를 우선시할 것,
- 평생학습을 위한 현재의 상황을 강화할 것
- 전 정부 차원의 통합적 접근을 촉진할 것
- 장단기 고려사항들을 결합할 것
- 중앙-지방 정부의 각 단계별 협력을 촉진할 것
-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할 것
- 글로벌 관점을 제공할 것

이런 제안들은 해볼 만하고 또 필수적인 걸로 보인다. 그러나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 단지 보고서용으로 작성된 분석과 제안들은 사실 겉보기에는 매끄럽게 쓰여져 있지만 실상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데, 예컨대 실제 세계에서 도시혁신은 주로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한 파트너십, 혹은 결과가 분명치 않은 실험 등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이다. 실행은 타협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장애물

들을 조우할 수 있다.

실제 실행은 정부가 제일 힘들어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위기 상황들은 선거의 기반을 좁히고, 공공 행정의 폭과 크기를 줄어둘게 만들면서 정부를 약화시켜왔다. 위기가 닥치면 정부의 거버넌스를 전략적으로 개혁하는 일이 더 어려워진다.

건강, 지속가능성, 혹은 학습을 위한 글로벌도시네트워크가 있다. C40운동은 58개의 도시들이 참여하며, 그중에는 거대도시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주로 지속가능한 공공기반시설 재정을 개선하는 경험을 공유한다. 그리고 도시나 지방정부를 직접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위한 정부간기구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조직과 계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수천의 도시들 중 제대로 혁신을 지향하는 도시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학은 도시보다 훨씬 더 "국제화"되었다. 2007년 OECD 국가들의 대학에는 250만 명의 국제유학생들이 있다. 1998년 이후로 90%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들 중 67%는 OECD 비회원 국가 출신이다. 대학들은 국경을 넘어 대학간 연계를 하기도 하고 해외 캠퍼스를 설립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혁신과 경쟁이라는 긍정적 효과, 즉 수입품이 국내시장에 들어오고 해외 기업이 국내에 진입할 때와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글로벌 마켓, 즉 학생들과 연구자들을 위한, 혹은 연구의 응용을 위한 영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퍼포먼스기반의 산출지향적 방법들은 상당수의 대학들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었다.

고등교육기관들은 혁신의 차원을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그 혁신을 도시의 필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용하는 한편,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성인기 전반에 걸친 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 장기적 관점 : 대학은 본질적으로 정권이나 경제사이클보다 더 오래 지속되어왔다. 이는 부분적으로 대학이 자율성을 가진 거버넌스방식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며, 또한 대학이 지식의 관리자, 즉 문화유산의 사제이며 청년들을 돌보는 자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진리의 추구 자체를 윤리적인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 다학문성 :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다양한 학문들의 역량과 창조성에 의지해야 한다.
- 연구와 실천적 과제의 접점 : 대학 캠퍼스에는 연구의 실천적 적용을 위한 전문적 지식들이 존재한다.
- 비선형적인 학습과 발견 : 강의는 보통 교과서 첫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선형 모델에 근거한다. 하지만 실험실습이나 자료 조사만 하더라도, 혹은 대학이 비즈니스나 지역과 만나는 접점을 통해서 교수와 학생들은 관찰 참여자(observer-participants)적 학습을 새롭게 경험한다. 이러한 모델은 강의실에서의 교육을 풍성하게 만들며 그것을 완성시킨다.

- 대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혁신하는 실험장이다.

PASCAL이 학습도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리고 유네스코의 UIL(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의 국제 학습도시 프로그램과의 협력 속에서 분명히 해온 학습도시의 개념은 이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학습도시는 사람들이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차별적인 방식으로 일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자 노력하는 공간이다. 이것은 시행착오(trial-and-error)의 과정이다.

실천을 위한 시사점(Implications for practice)

교육시스템 특히 대학은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들은 국제적인 교육과 연구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등을 통해 이러한 아젠다를 진전시킬 수 있다.**

다음의 세 가지 지점에서 주요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 수업, 및 지역참여

- 공공서비스의 혁신
- 경쟁과 접근가능성을 통한 서비스의 질 개선
- 공공서비스 영역 참여자들이 활용가능한 지식을 최적화
- 지역사회 수준에서 공공서비스의 전달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개혁
- 공공서비스커뮤니티를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서의 위기, 취약성, 회복력
- 국제 질서 속에서의 안전이라는 새로운 영역, 그리고 국제적 협력과 공공재의 적절한 확보를 촉진하는 방법
- 혁신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과 공공서비스를 위한 장기적 자원조달 방법
- 좋은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교훈을 얻기 위해 평가방법과 역량개선 방법

이것은 모든 대학들, 즉 첨단연구중심대학 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중심대학까지도 실천할 수 있는 아젠다이다.

대학은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나타나는 혁명'이라는 아젠다를 그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직시해야 한다. Glasgow와 Tec de Monterrey(몬테레이 공과대학) 같이 PASCAL 센터들이 있는 대학들은 캠퍼스를 혁신하고 있으며 대학을 지역으로부터 분리시켜온 벽을 허물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인 변화는 사회적 통합이라는 아젠다를 지향하는 관점과 가치, 의지의 변화를 보여준다.

대학의 모든 학문은 물리적 법칙, 역사적 사실들의 규칙, 언어적 규칙, 경제적 패러다임 같은 규칙들을 발견하고 체계화하며 또한 세상에 전파한다. 이들은 지식이 결국 생물학적, 사회적, 물리

적 체계들을 연구하고 그 근저에 있는 구조와 패턴을 드러낼 수 있다는 생각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식이 만들어지고 검증되는 방법은 그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특정한 규칙을 따른다는 생각을 구현하는 것이다.

제도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 특별한 공간으로서의 대학은 전통적으로 그들 자신만의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내전이나 국제 분쟁 기간 동안에는 피난처로서 기능해왔다. 진리로서의 지식이 성스러운 것이라면 대학은 실질적인 성역이다. 대중적 압력과 거짓 뉴스가 증거기반 의사결정을 무력화하는 상황에서도 대학은 분명히 한 발자국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대학이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며, 이런 결함을 통해 오히려 불관용과 보호주의를 만들어 내는 각종 쟁점들과 싸워 나가야 한다.

대학에는 도시가 어떻게 기능하고, 진화해 왔는지를 이해하는 전문가와 도시 문화의 해석에 적절한 방법적 지식을 개발하는 전문가 그리고 건축가, 엔지니어, 도시 행정가, 교육자, 건강 전문가, 법률가 등 다음 세대를 훈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다. **이런 다양한 학문분야들, 즉 화학, 지질학, 언어학, 법, 재정, 제반 과학 및 사회과학 영역, 인문학 등의 전문가들을 서로 묶어내기 위해서는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자신의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밤하늘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밤에 도시의 불빛을 줄이기 위한 운동을 생각한다면, 여기에는 천문학자와 조명기술자뿐만 아니라 안전 전문가, 디자이너, 예술가들까지도 필요하다. 비록 논쟁과 의견충돌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은 원칙적으로 각기 다른 아이디어들이 상호촉진하도록 지원한다. 대학 안에서 다학문적 교육과 연구가 가능하다면, 공공행정 영역 안에서 다영역간의 협력 사업은 이보다 훨씬 쉬울 것이다.

실행(Actions)

때때로 이니셔티브는 대학 바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반면, 대학들은 때때로 먼저 지역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비즈니스 영역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때로는 지역사회와 도시 당국이 그 관할 지역 내에서 학습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대학들은 그들의 공간을 더욱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학생과 교직원들이 당면한 사회적 요구를 표면화하고, 이를 계기로 그러한 대학내 대책들이 실제로 대학 주변의 지역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대학은 도시이건 농촌이건 어디에나 존재한다. 대학은 경제 규제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보여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학은 지역사회, 회사, 혹은 정부를 책임지는 사람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곳이며, 수많은 성인 인구가 다원화된 글로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숙하도록 돕는 곳이고, 또한 지식과 생각이 확인되고, 검증되며, 전파될 수 있는 장소로서 그 안에서 진리를 오류로부터 가르치는 기준을 정하되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남기는 것을 통하여 질문과 반대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곳이기 때문이다.

PASCAL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How PASCAL assist?)

- PASCAL은 혁신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고 실패의 위기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국가 재정적인, 경영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의사결정권자들이 지역의 "좋은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Szanton, 1981: 155). 워크숍과 보고서는 이를 위한 기본적인 도구이다.
- PASCAL은 그 센터들을 활용해서 지역의 이익을 보장해줄만한 발전의 증거들이 대학 캠퍼스 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 매년 진행되는 PASCAL 컨퍼런스에서 생산되는 비교연구와 보고서, 사례 연구 등은 견고한 증거와 성공사례 들을 제공한다.
- PASCAL 관련단체 네트워크는 급박한 요구에도 적절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 국제 네트워크로서 PASCAL은 글로벌 거버넌스가 지역주의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최종적으로,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주된 가치는 생산성 향상을 넘어 진보를 위한 협력에 동참하는 것에 있다.

- Sources

- Florida, R. (2017). *How Universities Foster Economic Growth-and Democracy*, Retrieved on 7 November 2017 from <https://www.citylab.com/equity/2017/11/how-universities-foster-economic-growthand-democracy/545051/>.
- OECD (2009). *Higher Education to 2030, v.2, Globalisation*, Paris: OECD (see especially) pp. 89-108.
- Szanton, P. (1981) *Not Well Advised*,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Valero, A. and Van Reenen, J. (2016) *The Economic Impact of Universities: Evidence from A round the Glob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22501, Retrieved on 7 November 2017 from <https://ssrn.com/abstract=2823309>

PASCAL International Observatory는 혁신적인 해결책의 촉진과 타당화를 지원할 수 있다. 우리의 학습도시 네트워크의 전문가들은 다음을 할 수 있다.

- 대학 총장 수준의 대학 리더들, 시장을 포함하는 도시의 리더들, 혁신을 담당하는 행정가

들과 지역이나 국가 차원의 정책 입안자들을 상대한다.

- 독립된 보고서와 활발한 웹사이트를 생산함으로써 개발 분야와 자선활동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 교육과 역량에 대한 요구를 분명히 하도록 도울 수 있고, 특히 청년층 사이에 기업가 정신을 진작시킬 수 있는 지역의 비즈니스 리더에게 정보를 주고 관심을 모은다.
- 국가 연구 위원회와 재단을 위한 연구의 우선 순위를 정한다.

웹사이트를 통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pascalobservatory.org>